

	제목	페르시아어 처소전치사의 이중적 해석과 구조연구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언어와 언어학 53)
	발행일	2011. 11. 30.
	저자	곽새라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1-20
	ISBN 또는 ISSN	1225-4967

내용 요약

이 논문에서는 처소전치사가 가지는 이차적인 의미를 찾고, 이러한 의미가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지 그 구조를 모색하였다.

단순문장에서 동사가 문미에 배치되는 페르시아어에서 ‘처소전치사구+동사’의 문장은 이중적으로 해석된다. 첫째, 처소전치사가 갖는 일차적 의미인 처소논항으로의 해석이다. 문장의 행위자는 정적인 장소인 처소에서 동사가 함의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이때, 처소전치사구는 동사구의 부가어로 생성되며, 이 전치사구는 생략이 되어도 동사나 문장 전체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페르시아어에서는 처소전치사구를 이용하여 경로논항을 표상할 수도 있다. 이때 반드시 움직임 동사 혹은 동작 동사의 선택을 받는 경우에만 처소전치사구가 경로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경로로 해석되는 처소전치사구를 동사의 보충어 자리에 위치시킨다면, 동사와 전치사구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구조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의미의 처소전치사구는 구조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자리하지만, 문자화 되는 순서상으로 모호한 해석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페르시아어의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워서 구성성분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는 데도 불구하고, 처소해석 전치사구가 동사 뒤로 이동할 수 없는 이유를 경로 해석 전치사구와의 구조적 차이에서 찾았다.